



###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가 성공의 지름길이야. 좋은 대학을 가야 폼 나게 살 수 있어. 넌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공부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혹시 그동안 자녀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말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해 본다. 자녀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있는지? 공부 스트레스 주기 전 자녀에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한다. 그것도 우격다짐이 아닌 아주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설명을 해서 아이를 설득해야 한다. 자녀도 나를 자기만의 꿈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단지 성공이나 좋은 대학을 위해서라고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좀 더 본질적 차원에서 아이와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전 생애적 차원에서 알기 쉽게 자녀에게 설명해 주면 좋다. 그래야 자녀를 설득할 수 있고 스스로 책상에 앉게 할 수 있다. 물론 공부의 지속도 가능하게 한다. “공부는 단지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네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평생 너 자신의 삶을 실현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인류에 공헌할 수도 있는 거란다.”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서 말이다.

### 공부에 임하는 자세

공부를 잘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공부 자세 확립이다. 본받을 만한 공부 자세를 보여준 율곡 이이의 예를 들어보겠다. 그가 강조했던 공부에 임하는 자세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규칙적 수면과 식사, 잘못된 들어진 습관 타파, 철저한 시간 관리, 공부와 독서의 병행, 친구들과의 토론, 다방면에 걸친 관심 등이다. 이와 같은 율곡의 공부 자세는 오늘날에도 유용하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조선 제일의 공부 달인이 되어 아홉 번이나 장원 급제했고 자신만의 독창적 학문 세계를 열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의 치열한 자기 계발 의지와 노력하는 자세다. 그의 성공은 바로 공부에 대한 강한 목표 의식과 엄중한 실천 습관이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면 노력해서 배워야 한다. 노력을 통한 배움이 없으면 가진 재능을 넓힐 수 없다. 그리고 뜻을 세워야 배운 바를 성취할 수 있다. 게으름은 배움의 정진을 가로막고, 거칠고 급한 마음은 좋은 품성을 기르는 데 방해가 된다.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 품었던 뜻과 의지마저 사라져 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 그때 가서 초라한 집을 지키며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으리라.



촉나라의 지략가 제갈공명이 자신의 아들 첨에게 보낸 깨우침의 편지 계자서(誡子書) 중 한 구절이다. 자식에 대한 부모로서의 교육적 관심을 진지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명의 편지에서 노력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 좋은 습관 형성 및 심리적 안정의 필요성, 시간의 소중함 인식 등이 읽힌다. 공명의 계자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노력하는 자세다.



##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성

첫째,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합니다

셋째,  
개념을 적용하는 역량이 탁월합니다

넷째,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둘째,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째,  
생각을 많이 합니다

### 공부 잘하는 학생의 공부법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주도적 공부 전략이 있다. 자신만의 디테일한 전략으로 공부한다. 여기, 공부 잘하는 학생의 공부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우선, 학교 공부를 가장 중요시한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곧 시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을 무시하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때 학교에서 학습한 내용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조화한다. 학습한 내용을 재구성해 정리한 후 기억하고 문제 상황에 적용한다. 다음으로, 공부한 내용을 일상생활 속의 소재들과 연관 지어 생각한다. 학습 내용을 일상생활과 연관 지으면 오래 기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습 내용이 확장되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출제자의 의

도를 먼저 파악한 후 문제를 푼다. 이러한 문제 풀이 태도는 출제자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준다. 이밖에 친구와 서로 문제 출제자 역할을 하며 학습 내용을 기억하고, 틀린 문제에 대해 오답노트를 만들어 분석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보다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을 스스로 찾아간다. 공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부 DNA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후천적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공부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자녀에게 공부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준다면, 점점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되고 결국에는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 외부 필진의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